

2년 공전 여야정협의체 재가동하나

송영길 제안에 이준석 화답 손실보상법·백신 개발 등 민생 현안 먼저 논의 될 듯

2년 넘게 공전해 온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재가동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협의체 가동 제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해 정례화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이 그간 청와대와 여당의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 제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락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여야 대표가 뜻을 함께한 만큼 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양당 지도부 간 물밑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의 빠른 화답을 환영한다”며 “실무진 간 구체적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가 재가동되면 당장 여야간 힘겨루기가 팽팽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방지 대책, 백신 개발 등 민생 현안이 먼저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협의체가 재가동에 들어가더라도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년 반 넘게 멈춰선 탓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2018년 8월 청와대 오찬에서 합의한 기구로,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분기별 1회 개최 쪽으로 가닥이 잡힌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2018년 11월 5일 열린 회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당시 여야정은 이견 대립이 첨예했던 탄력근로 확대 적용에 최종 합의했지만,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 등을 놓고 제1·2 야당이었던 당시 자유한국

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발, 협의체 실무회동 불참을 선언했고 이후 파행을 거듭하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회의체로 전락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 차원이라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그간 파행의 원인은 여당과 청와대의 일방적 국정운영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의장에 나와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협의체 재가동’을 답석 받아든 것을 두고 복잡한 속내가 감지되기도 한다. ‘이준석 바람’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에 민생 현안의 주도권과 아울러 여론의 관심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협치의 ‘공’이 고스란히 국민의힘을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30대 당수가 등장한 것만으로 민주당은 쇠신 경쟁에서 뒤처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협의체가 가동돼도 스포트라이트는 이 대표에게 집중되지 않겠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1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기념관 개관 기념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DJ 적통은 나” 이낙연·정세균 경쟁 치열

DJ 일산 사저기념관 개관 행사 참석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적통’ 메시지가 경쟁이 치열하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14일 경기도 고양시 김 전 대통령 일산 사저 기념관 개관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DJ 인연’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축사에서 “지도자 유형엔 역사의

지도자, 시대의 지도자, 그때그때의 지도자가 있는데, 김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사의 지도자”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역사의 지도자와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은 우리 세대의 축복”이라며 “당신의 꿈과 권한, 성취와 좌절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일부였다”고 했다.

정 전 총리도 축사를 통해 “1997년 대선 직후 당선인 신분이었다면 김 전 대통령이 저를 일산 사저로

불러 노사정위원회를 꾸리는 데 함께 일해달라고 했다”며 “IMF(국제통화기금)가 점령군 행세를 하던 때”라고 반추했다.

이어 “지금엔 제2의 IMF 환란에 비견되는 국가 위기로, 김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본받아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 따뜻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총리직 퇴임 후 첫 정치 행보로 이낙연 일산 사저를 찾아 초심을 되새겼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15일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관련 학술회의에도 참석한다.

/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준석 돌풍’에 내부협공까지…고심 깊은 이재명

지지율 25% 박스권 돌파구 절실 “당이 빨리 경선 일정 돌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우외환의 상황 속에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안으로는 기본소득과 경선 일정 연기 문제 등을 둘러싼 주자들의 협공이 이어지고, 밖으로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돌풍’과 함께 쇠신 주도권을 잡은 듯한 형국이 때문이다.

범야권에 대한 기대감 고조와 맞물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까지 덩달아 상승 기류를 탔지만, 이 지사는 25% 안팎 박스권에 머무르면서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지사 측근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당이 빨리 경선 일정에 돌입해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35.5%, 이 지사는 27.7%로 나타났다. 전날 PNR리서치 여론조사(이상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선 윤 전 총장이 39.1%, 이 지사가 26.2%로 격차가 더 컸다.

지지율이 30~35% 안정권에 들어야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는데 25% 안팎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이 지사로서 고민되는 지점이다. 이때문에 7~8월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끼리 치열하게 정책 경쟁을 펼치고 9월 정국대회에서 당 후보 중심

으로 국민들이 실감할 예산·입법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 측 구상이다.

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에 이어 윤 전 총장 등 외부 인사 영입, 국민의당과 합당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역동성을 보여준다면, 집권 여당은 민생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위한다는 백마디 말보다 국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한 가지 실천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며 “유능한 개혁”을 강조한 것도 이런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내부 주자들의 견제는 한층 거세지고 있다.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 당내 경쟁자들로부터 전방위 공격이 쏟아지는데다 경선 연기를 고리로 반(反)이재명 연합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조짐이다. 이 지사 측도 이런 연합 전선에 맞서 경선 연기 반대 입장을 재차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말로만 선명후사하고 개인적 권력욕만 추구하는 정치는 자신을 망치고 당과 나라에도 해악을 끼친다”고 밝혔다. 경선 연기론자들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지사는 15일 전국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서을 출범 행사에 참석해 추사한다. 민주평화광장은 16일 경기, 17일 인천, 18일 부산에 이어 19일 강원을 마지막으로 지역별 출범식을 마친다. 이 지사가 공식 출마선언을 앞두고 전국 지지 기반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곧 대선기획단 구성 논의…세대교체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대선기획단 구성 논의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선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4일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6일 오후 최고위에서 대선기획단의 인선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선기획단이 구성되면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방식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일부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경선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기획단 인선부터 주목받는 상황이다. 특히 기획단장을 누가 맡느냐도 관심사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선출 등으로 ‘세대교체’가 주목받는 만큼 젊은 감각을 가진 파격적 인물이 기획단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든다. 일각에서는 이동욱 청년 최고위원 등의 발탁도 거론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당의 일정상(예비후보) 등목일이 안제어야 한다는 기준이 없고, 대선기획단 발족과 함께 정할 것”이라며 “대선기획단 인선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소병철 “전남만 의과대 없는 건 생존권 차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공공의료 대전환을 위한 ‘공공의료포럼’ 출범식에서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만이 의과대학이 없다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서서 국민의 생존권, 의료복지권에 현격한 차별이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특히 전남 동부권은 순천·광양·여수·곡성·구례·고흥까지 하면 거의 인구 100만에 육박하지만, 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에 광주까지 앰بول스를 타고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강장구·조경애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는 포럼 출범 선언서에서 “질 좋고 경쟁력 있는 공공의료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별 의료 이용 격차와 불평등 해소, 국민 의료비 절감을 넘어 지역 경제와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낳는다”고 밝히며 전남 지역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을 지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상가 매매 (상무지구)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8천 (용 4억가)

2) 보증금 4천만, 월 300만(임대완료)

3) 평수 140평(전용 100평)

중심상업지역 메가박스 영화관 앞
 사무실, 바, 유희룸, 모든 업종 가능

(즉시 업무가능, 시비없음)

010-6670-9800

장성토지 (분양 매매)

광주에서
20분(도로접)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

1) 100평 → 8천
2) 150평 → 1억1천

총 1,778평 → 9억 (용 4억가능)

10필지 전원주택
선착순 접수중

062-382-5500